

설악산 이야기와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

1. 목적 및 배경

- 설악산의 비경과 주변 명소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생태관광(), 환경교육(), 상시(○), 특화()
- 프로그램명 : 설악산 이야기와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
- 대 상 : 학생, 가족, 일반성인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형태 : 매일 14:00~16:00
- 장 소 : 설악산 생태탐방원 내 창의실
- 주요내용 : 설악산 비경이야기 PPT 진행,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머그컵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등을 체험함.
- 소요예산 :
- 참가비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공지
- 참가자 접수 방법 :
- 사업성과 홍보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서면)
- 효과성 조사 :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설악산비경이야기와 환경을 지키는 실천프로그램

활동장소
소요시간
참가대상
참가인원
작성 자

강의실, 창의실
60
초등생~성인
20명내외/해설사2명
자연환경해설사 박현숙

활동목표

- 설악산의 비경과 주변 명소를 소개한다.
-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준비물

- 설악산 비경이야기 PPT,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 자료

유의사항

- 체험 프로그램 자료 준비 철저
- 참가자 연령대 확인으로 체험 프로그램 결정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첫 만남, 프로그램 소개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 비경이야기 PPT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 국립공원과 비경이야기 - 설악산 탐방원의 주변 명소를 소개하기 •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 운영(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머그컵 만들기) -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코백 만들기) - 천연 가습기(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10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킹 후 느낌나누기 • 마무리 스트레칭 하기 	5분

○ 인사말 및 국립공원 소개

안녕 하십니까? 오늘 설악산 비경이야기를 전해드릴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악산 어떠세요? 네에~ 주변에 푸르름이 가득하고 좋은 공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 설악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악산 생태탐방원에 대한 소개와 탐방원 주변의 명소 등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 설악산국립공원 소개 (번호는 PPT 페이지 번호와 동일)

1. 그럼 비경이란 무얼까요? 네에~ 바로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 설악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립공원과 생태 탐방원, 설악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야기 순서를 보시면 우선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또한 설악산생태탐방원은 어떤 곳인지.. 마지막으로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___을 만들어 볼 겁니다.
3. 국립공원이란 생태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곳을 나라에서 정해서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4. 산으로 이루어진 곳은 산악형(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이것에 속함), 바다로 이루어진 곳은 해상형, 역사적 유물들이 많은 곳은 사적형 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 산맥의 중심이 되는 백두대간은 북쪽으로는 백두산부터 남쪽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약 1400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산줄기입니다. 우리나라 야생 동식물의 80%가 이곳 백두대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설악산은 남북한을 잇는 생물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6. 혹시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에 있는 이동물의 동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동물의 이름도 알고 계시죠? 네, 정확한 이름은 반달가슴곰입니다. 이 동물을 보신다면 정확하게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멋있다? 아니면 잘생겼다!? 이 반달가슴곰이 설악산 소공원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진은 1983년에 바로 이곳(반달가슴곰 동산 바로 뒤쪽 계곡:마등령 범잠바위골)에서 죽은 반달가슴곰 사진입니다. 밀렵꾼의 총을 맞고 도망치던 반달가슴곰이 이곳에 쓰러져 사흘 동안이나 치료도 제대로 받거나 옮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반달가슴곰이 죽으며 “으엥으엥” 슬피 울던 소리가 계곡을 뒤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86년도에 방송국 카메라에 잠깐 모습을 보인 후 영영 설악산에서는 반달가슴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소공원에 반달가슴곰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7. 설악산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한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고 그래서 1년에 몇 달 빼고는 눈에 덮여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설악산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IUCN에서 카테고리II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8. 그럼 이렇듯 가치가 높은 설악산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경관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9. 설악산은 크게 대청봉을 중심으로 내설악, 외설악, 남설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지도는 우리 탐방원에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10. 여러분들이 설악산.. 하면 떠오르시는 곳이 어딘가요? 혹시 반달가슴곰 동상이 있는 그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거기는 소공원 입니다. 그 곳에서 올라가는 곳이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탐방원에서 1시간 가까이 가셔야 하고요.

11. 잘 보셨나요? 이 사진은 대청봉입니다. 몇 년 전에 직원이 직접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죠?? 높이가 1708m이나 돼서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입니다. 설악산은 식물이나 동물이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곤충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아서 아직도 미 기록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이 사진은 백담사 사진인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계셨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계절 너무 멋진 곳이니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13. 이 십이선녀탕은 탐방원에서 백담가는 곳으로 가다보면 있는 예쁜 곳인데요.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코스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탐방로를 따라 계속 되기때문에 여름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시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정말 멋진 복숭아탕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올려다 보면 복숭아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4. 미시령을 넘어 속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실 수 있을텐데요. 둘레가 4km나 되는 단일 암체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위입니다. 우뚝 선 바위의 모습이 웅장 하고 그 위에 눈이 덮여 있으니 멋진 경관을 자랑 하네요. 울산바위의 전설은 모든 분들이 한번 정도씩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는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울산바위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후에 울산의 군수가 울산바위에 대한 돈을 요구하러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 하자 울산바위를 가져 갈 것을 이야기 하죠. 그러자 울산군수는 알겠다! 그럼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 갈 수는 없으니 불에 태운 풀을 이용하여 새끼줄을 꼬아서 울산 바위를 묶어 두면 가져가겠다는 조건을 제시 합니다. 이에 고민하던 설악산 에서는 좋은 묘안을 생각하던 중에 풀로 새끼줄을 끈 후에 그곳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울산군수는 울산바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두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속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5. 지형적인 특성(가파른 경사지, 암반지대)상 이곳에는 깊은 계곡과 폭포가 많으며, 오색약수가 있고, 46년 만에 개방된 만경대를 통해서 높은 곳에서 경치를 감상 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경인 곳입니다.

16. 88m 수직낙하.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입니다.. 대승폭포-한계폭포라고도 한다.

(3대 폭포 : 금강산 구룡폭포, 개성 박연폭포, 대승폭포)

대승폭포에 올라가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구천은하(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17. 탐방원 앞 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험

한 고갯길로 유명한데요.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곳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이곳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하루도 같은 모습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겨울엔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겨울 설경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죠. 가끔 천연기념물인 산양도 만날 경우도 있고, 퇴근길에 위험한 멧돼지도 만날 수 있는.. 아직까진 그야말로 야생인 곳입니다. 탐방원에 계시는 동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8. 아까 국립공원이 몇 개 있다고 했었죠? (대답..22개) 네 맞습니다. 22개 였죠. 이렇게 많은 국립공원에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동,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식물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깃대종입니다.

19. 설악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산양과 눈잣나무입니다.

산양은 소과에 딸린 발굽동물로서 계통진화학적으로 소과 동물 조상의 형질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4종의 산양이 있는데 모두 국제적인 보호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양(*N. caudatus*) 1종이 있으며 백두대간을 따라서 바위와 절벽으로 이뤄진 험준한 산악 지역에 살아갑니다. 암수 모두 뿔이 있고 얼굴에 분비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0. 산양 사진, 산양 발굽사진.. 양 끝은 딱딱하고 가운데는 말랑말랑해서 높은 바위에서 살아가기 유리합니다.

21. 왼쪽 사진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잣나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눈잣나무 사진인데요. 성인 키 허리정도 밖에 안 될 만큼 키가 작습니다. 주로 고지대, 중청 대피소 근처에 많이 서식하는데 누운 잣나무라는 의미로 눈잣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22. 탐방원 설립목적은 청정한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과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 및 휴양 중심의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2018년 4월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탐방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및 미래세대 환경교육, 직무연수 등 자연,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생태관광 체험시설입니다.

23~24. 이런 생태탐방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과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생태체험과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해 보는 진로체험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 2011년도 북한산 생태탐방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지리산 설악산 등 총 8개의 생태 탐방원이 있습니다. 이 8개 탐방원들은 제각기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전국에 있는 탐방원들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 설악산생태탐방원 이용시설 안내 (강의동, 생활관)

27. 이용시 주의사항

28. 왼쪽 사진은 탐방원 앞에 보이는 한계천 겨울 모습입니다. 장마철이나 여름이 되면 물 양이 많아져서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죠. 오른쪽 사진은 앞에 보이는 안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산도 설악산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설악산 줄기 중에 안산이 있는 것입니다. 갯기폭포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만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방원을 방문 하셨을 때 직접 보시면 좋지만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으로 준비 했습니다.

29. 이곳은 탐방원에서 차로 2분정도, 도보로는 약 30~4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요. 인제로 가는 길로 좀 가다보면 길 왼쪽으로 보이는 소나무 숲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숲 놀이도 하고요. 성인분들이 오시면 명상과 숲 요가 또는 노르딕워킹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30. 인제, 원통..이라고 하면 군인, 군부대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인제나 원통에는 예술, 문화 쪽으로 볼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가족들과 산책 겸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탐방원에서 속초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하나를 지나서 12선녀탕 근처로 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관도 있는 만해마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한국 시집박물관과 여초 서예관이 있습니다. 야외 산책로도 연결 되어있고 경치도 아름다우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내설악 공공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인제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1년 내내 상설 전시가 되는 곳이라 미술이나 조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겠죠. 또, 여기서 20여분 서울 쪽으로 가면 인제 읍내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산촌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촌 마을의 옛날 생활상을 여러 전시물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박인환 문학관도 나란히 있어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어디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이니깐요. 여유롭게 둘러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만의 친환경 머그컵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친환경 머그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컵 자주 사용하시나요? 종이컵 1톤을 생산하는 데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당 한 해에 약 500여개의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공공기관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종이컵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종이컵은 종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종이컵은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젖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컵 안에 얇게 막을 입혀야 하는데요. 플라스틱을 얇게 씌운다고 하네요. 이것이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종이컵이 땅속에 들어가서도 잘 썩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특히나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많이들 드시는데 화학약품이 베어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담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2018년부터 설악산생태탐방원 내에서는 종이컵과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는 환경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만의 머그컵을 만들어 사용하며 환경도 보호하고 내 몸도 보호하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 만들기 체험 진행

- 연습지에 기본 스케치→ 전사지에 옮기기→ 전사지를 머그컵에 붙이기→ 머그프레스로 찍어내기→ 충분히 식히기 → 완성 사진 찍기



○ 마무리

자~ 지금까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체험은 단지 머그컵을 사용하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꿀 순 없지만 이 곳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부터 작게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비닐봉지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국에서 하루에 버리는 비닐봉투의 양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1인당 연간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약 420여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샷배배송이다 여러 가지 음식 배달이 용이해지면서 비닐봉투나 일회용품들의 사용량이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환경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연간 60~70장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은 세계 1위입니다. 최소한 장 볼 때,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요즘 비 왔을 때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등을 이용해 빗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에코백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종류의 에코백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전용 마커로 색칠만 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색까지 칠하는 무지 에코백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하셨나요? 무지 에코백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필로 연하게 스케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마커로 그리면 지울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림 시작해 주세요.

○ 에코백 만들기 진행



○ 마무리

자~ 지금까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만들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체험은 단지 에코백을 사용하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꿀 순 없지만 이 곳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부터 작게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 천연 가슴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 미세먼지 이야기

2018년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 입자들인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먼지입자들은 특수 마스크를 써야만 가려지는 데다 피부와 옷에까지 붙으며 불청객이 되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야기 시키고 사망률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스칸디아모스 이끼 소개

이번 시간에는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스칸디아모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폭신폭신탄, 말랑말랑 만지면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무지개 색 식물이 있습니다. 천연 이끼인 스칸디아모스인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나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공기를 타고 떠다니는 유해물질들을 흡수해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아토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건물 외벽에 스칸디아모스를 깔아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커다란 북 카페나 건물 안 로비 등에도 벽면 전체를 스칸디아모스로 장식한 곳도 볼 수 있죠. 저희 탐방원과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소백산 탐방원 로비에도 기둥을 이 스칸디아모스로 장식해 두었는데요. 장식 효과도 있고 공기청정 역할도 해 주니 1석 2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북유럽 지역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자라는 천연 이끼로, 순록이 실제로 이 이끼를 먹고 자란다고 해서 순록이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라는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별도로 관리가 필요 없어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실내가 건조하면 수분을 내 보내고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흡수를 하는 등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조절합니다. 혹시나 집에 가져가셔서 많이 건조해 졌다 싶으시면 샤워 하시는 욕실에 하루정도 두시면 욕실 수분을 머금고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순서)

- 흰색 캔버스, 이끼, 글루건, 장식용 자연물, 사인펜 등을 준비한다.
- 연필로 배치를 위한 스케치를 해도 좋다.
- 어울리는 색을 잘 고려하여 배치한다.
- 얇게 목공판을 바르고 배치된 이끼를 붙인다.
-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루건을 사용한다.(화상주의)
- 장식용 자연물이나 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완성한다.



○ 마무리

자~ 지금까지 친환경을 인테리어 소품인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체험은 단지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액자를 만들면서 다시금 미세먼지나 우리 환경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곳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조금씩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꿀 순 없지만 이 곳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부터 작게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